



이미래(1988년 서울 출생, 암스테르담 활동)는 기계 장치와 공학 기술, 전통적인 조각 재료 및 영상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설치 작품을 만든다. 모터, 펌프, 비계 구조, 파이프 등 중장비와 레진, 실리콘, 석고, 글리세린, 점토 등 유연한 재료를 조합하여 다루는 이미래는 제작 과정 중 재료의 물질성, 스케일, 그리고 동작에 직접 개입하는 촉각적인 실천을 이어왔다. 살아 있는 생물을 연상하며 동작하는 설치 작업은 지성이나 언어의 영역을 넘어선 내장적 감각을 탐색하며, 선형성과 발전의 서사, 철저히 구별된 자아와 사회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래는 서울대학교 조소과에서 수학했고, 뉴뮤지엄, MMK 프랑크푸르트, 헤이그 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2018),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2022), 제58회 카네기 인터네셔널(2022), 2022 부산비엔날레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1 Black Sun 검은 태양

2023, 뉴뮤지엄, 뉴욕, 미국

뉴뮤지엄 4층 갤러리에서 열린 《이미래: 검은 태양》은 이미래의 뉴욕 데뷔 개인전으로, 건축 환경 및 키네틱 조각, 패브릭 작업으로 구성된 장소 특정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모터, 펌프 시스템, 강철 막대, 그리고 글리세린, 실리콘, 슬립, 오일로 채워진 PVC 호스 등으로 구성된 동적인 조각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생물학적 기계처럼 작동한다. 건축, 공포, 포르노, 사이버네틱스에서 영감을 얻어 신체의 기능과 쇠퇴하는 환경을 연상하는 이 작업은 기술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본능적으로 드러낸다. 우울증과 펠랑클리아에 대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1987년 저서 『검은 태양』에서 제목을 따온 이 전시는 공간과 분위기, 그리고 천, 강철, 점토 등의 재료 탐색을 통해 감정적 공백과 심리적 긴장을 암시한다. (뉴뮤지엄 제공)

2 Endless House 끝없는 집에서

2022,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꿈의 우유》

(베니스, 이탈리아)

『끝없는 집』에서는 유기적 건축과 내장적 정념에 대한 해석을 잘 보여주는 연작으로, 그중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은 가장 규모가 크고 정교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연작은 건축가 프리드리히 키슬러(1890-1965)가 제안했지만 실제 스케일로 실현되지 못한 건축 모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HR GIGER & MIRE LEE》(2021, Schinkel Pavillon, 베를린, 독일)에서 속을 비우고 내부에 와이어 로프가 회전하는 조형물을 선보인 데 이어 《꿈의 우유》에서 이 연작의 대규모 비계 구조에 구멍이 뚫린 세라믹 조각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특수 설계된 펌프 및 모터가 핏빛 유약을 뿜어내는 대형 구조물을 선보여 건축적 전환을 드러냈다. 내장과 피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미래의 ‘집’은 내부와 외부, 내용물과 운반체,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에 도전한다.

3 Look, I'm a fountain of filth raving mad

with love 봐라, 나는 사랑에 미쳐날뛰는 오물의 분수
2022, MUSEUM MMK FÜR MODERNE
KUNST(MMK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서로 감기고, 미끄러지고, 뱀처럼 꼬인 튜브, 체인, 와이어는 유기적인 기계를 연상한다. 이러한 기구는 힘을 가하면 뱀뱀해지거나 유연해지며, 느리지만 적절하게 움직인다. 사방으로 흐르는 물, 기름, 때가 금속의 각진 강성을 강조하고, 플라스틱은 흐릿한 외관을 연출한다. 이미래의 설치 작업은 전기술적 의미에서 이미 오래전에 망각한 유토피아적 공포를 떠올리게 하며, 오늘날의 차갑고 깨끗한 디지털 기술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의 작동 방식은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변모한다. 서구에서는 산업의 악몽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반구에서는 오히려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MMK 제공)

4 캐리어즈

2020, 아트선재센터(서울, 대한민국)

조각과 설치 작업을 주로 다루는 이미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는 기계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손으로 재료를 만지며 작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에게 기계는 손이 닿는 물질의 움직임에 추진력과 반복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 『캐리어』(2020)는 호스 펌프를 이용한 대형 키네틱 조각으로, 동물의 소화기관을 닮은 형상이다. 이 설치/조각 작품은 점성이 있는 물질을 빨아들여 운반하고 추출하는 움직임이 반복하며, 물질이 조형물의 구조물을 통과할 때 기계가 움직이는 리듬에 따라 의외의 순간에 소리를 낸다.



I Installation view of Mire Lee: Black Sun, 2023.
Image courtesy of artist and the New Museum.
Photo: Dario Lasagni



3 Installation view of Mire Lee, Look, I'm a fountain of filth raving mad with love, 2022.
Image courtesy of artist and ZOLLAMTMMK, MMK Frankfurt. Photo: Avel Schneider.



2 Installation view of Endless House: Holes and Drips, 2022. The Milk of Dreams, La Biennale di Venezia.
Image courtesy of artist and Venice Biennale.
Photo: Sebastiano Pellion di Persano.



4 Installation view of Carriers, 2020.
Image courtesy of artist and Art Sonje Center.
Photo: Yeonje Kim.

이미레 MIRE LEE

1988년 서울 출생

학력

201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상연함매체 복수전공

주요 개인전

- 2023 *Mire Lee: Black Sun*, 뉴뮤지엄, 뉴욕, 미국
- 2022 *Look, I'm a fountain of filth raving mad with love*,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ZOLLAMT, 프랑크푸르트, 독일
As we lay dying, 헤이그 미술관, 헤이그, 네덜란드
- 2020 캐리어즈, 아트선재센터, 서울, 대한민국
- 2019 *Het is of de stenen spreken (silence is a commons)*,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 2014 낭만쟁취, 인사미술공간, 서울, 대한민국

주요 단체전

- 2022 *물결 위 우리*, 2022 부산비엔날레, 부산, 대한민국
The Milk of Dreams, 제 59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Is it morning for you yet?, 제 58회 카네기 인터내셔널, 피츠버그, 미국
- 2021 *Kunsthal Light Program*, 쿤스탈 로테르담, 로테르담, 네덜란드
TECHNO, 무세이온, 볼차노, 이탈리아
Contamination, 쿤스트페어라인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독일
HR Giger & Mire Lee, 쉐켈 파빌리온, 베를린, 독일
Chapter 4OUR, Het HEM, 잔담, 네덜란드
- 2020 *Breathing through skin*, 안테나 스페이스, 상하이, 중국
It is very difficult to be an islands of perfection in a sea of misery, but please do not doubt our sincerity, W139,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내 나니 여자라,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대한민국
- 2019 *In Between Uneven Stairs*, 터널 터널, 로잔, 스위스
Where Water Comes Together With Other Water, 제15회 리옹 비엔날레, 리옹, 프랑스
나는너를중세의미래한다I, 아트선재센터, 서울, 대한민국
Surface Tension, 샤프자예술재단, 샤프자, 아랍에미리트
- 2018 *더블 네거티브: 화이트큐브에서 넷플릭스까지*, 아르코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2018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광주시민회관, 광주, 대한민국
Fictional Frictions, 2018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광주, 대한민국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